

열애설 극구 부인하다 '새벽 기습 결혼발표'...왜?

(5일 오전 6시30분)

송중기-송혜교, 10월31일 결혼 발표한 이유

결혼시기 구체화속 갑수륙 취재열기 "팬들에게 직접 알리겠다" 강한 의지 '군함도' 개봉전 발표로 피해 최소화

송혜교(35)와 송중기(32)는 왜 그동안 열애설을 부인했을까. 왜 하필 5일 오전 6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내고 '10월31일 결혼' 계획을 느닷없이 알렸을까. 그간 '송·송 커플'이 보인 행보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둘러싼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개연애 고층 의식, 줄곧 '부인'

연인 공개마저 건너뛰고 결혼 발표로 직행한 '송·송 커플'의 행보는 어디서든 시선을 끄는 톱스타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반응이다. 공개연애가 만들어낸 후폭풍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애설을 '인정'하는 대신 '부인'하고 과도한 시선을 차단하는 쪽을 택했다.

이들의 이런 선택에는 앞서 송혜교가 겪은 공개연애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된 탓에 고층을 겪었기 때문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될 때마다 "결혼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쯤 결혼 시기를 구체화했다. 그렇다면 왜 5일 아침에 소식을 알렸을까. 의문이 많았으나 해소되지 않지만, 최근 이들의 결혼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사실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취재 대상이 송중기 부모에게까지 향해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톱스타들이 그렇듯 '송·송 커플'도 결혼 계획을 자신의 '입'을 통해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결혼설이 보도되고 이를 부인하

는 방식보다 직접 팬에게 소식을 전하겠다는 뜻에서 '새벽 보도자료'를 택했다.

●영화 '군함도' 개봉 피해 최소화

송중기 주연의 영화 '군함도' 역시 '송·송 커플'의 결혼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군함도'의 개봉 전과 후를 후보에 두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최근 '군함도'의 개봉이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화 공개 전 결혼을 발표해 비교적 부담을 덜 상태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

실제로 송중기는 6월 말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과 제작진에 결혼 계획을 알렸다. 영화 개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거질 결혼을 향한 관심의 시선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로 인연을 맺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와도 자리를 마련해 결혼 계획을 털어냈다.

●발리 동반여행 목격담 부담

'태양의 후예' 방송을 전후로 처음 불거진 '송·송 커플'의 열애설은 2년 동안 지속됐다. 외부로 드러난 적도 있지만, '소문'에 그치기도 여러 번이다.

열애설은 대부분 목격담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진 열애설의 진원지는 '뉴욕 데이트 목격담', 6월 두 번째 열애설의 배경 역시 '발리 리조트 목격담'이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목격담, 올해 1월 도쿄 목격담도 있다.

최근 발리 동반여행 목격담은 결혼을 준비하는 '송·송 커플'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송혜교 소속사 UAA 관계자는 5일 "여러 시선이 있지만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해 공개했을 뿐"이라며 "상견례나 결혼식 장소와 예식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난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는 송혜교(왼쪽)와 송중기는 수차례 제기된 열애설을 더 이상 부인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DB

송송커플 한류효과...웨딩후에도 뜨거울까?

해외매체들, 결혼소식 대대적인 보도 팬이탈 가능성 낮지만 반일성향 변수

해외시장에서 굳건한 위상을 쌓아온 송혜교·송중기 커플이 결혼 이후에도 이를 더욱 다질 수 있을까. 송혜교는 10년 가까이 '한류 여신'의 자리를 지켜 왔고, 송중기는 지난해 급격한 속도로 한류스타로 성장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시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태양의 후예'로 중국 한류의 인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그동안 한류의 주

대였던 일본에서 '험한류'로 인해 한국 콘텐츠 수요가 줄고 있는 시점에 '태양의 후예'가 중국 한류시장을 이전보다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전지현과 김수현이 '별에서 온 그대'로 재점화한 중국 한류에 더 큰 열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힘입어 송중기는 3개월 동안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티켓 파워를 손에 넣었다. 중국의 한 스마트폰 광고모델료로 40여만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타진 중국의 '한한령' 장벽, 현재 중국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전과 같은 한류스타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이들이 중국을 벗어나 홍콩과 대만,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앞으로 그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결혼 그 자체로 인한 팬심의 이탈 여부도 우려된다. 두 사람이 결혼을 발표한 5일 중국 등 해외 매체들도 상당한 비중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 달린 댓글은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팬심이 이들에게서 등을 돌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특이한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송혜교는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중국 CF 모델 제의를 거절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노역으로 악명 높은 전범 기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송중기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에 출연하며 역사의를 강조해 현지 언론의 화살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CS채널 '위성극장'이 '태양의 후예'를 지난해 세 차례 방송한 데 이어 5일부터 TBBS의 위성채널인 BS-TBS가 다시 방영을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남성 팬들의 연인 '태혜지' 다 떠났네

(김태희·송혜교·전지현)

3대 미녀스타 모두 '결혼 인생 2막'

송혜교가 송중기와 결혼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남성 팬들의 '모방'인 연예계 3대 미녀스타 '태혜지(태희·혜교·지현)이, 2009년 MBC 드라마 제목으로, 김태희·송혜교·전지현을 일컫는다'가 모두 '인생 2막'을 열게 됐다. 이상우·김소연, 주상욱·차예련 등 최근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커플들의 결실에도 시선이 쏠린다.

'태혜지'의 결혼 스타트는 전지현이 가장 먼저 끊었다. 전지현은 2012년 4월13일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의 외손자 최준혁씨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그는 결혼 후에도 흔들림 없이 힘찬 행보로 한류스타 반열에 올랐다. 결혼 후 복귀작인 영화 '도둑들'을 시작으로 '베를린'(2013)과 '암살'(2015)로 여배

우의 입지도 굳건히 했다. 안방극장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2013)와 '푸른 바다의 전설'(2016)로 중국어권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내년 1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가수 비와 결혼한 김태희 역시 연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2015년 드라마 '용팔이' 이후 복귀 시점이 언제일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올해 5월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오히려 출산 후 더욱 안정화한 상태에서 내보일 행보에 기대감이 쏠린다.

송혜교도 결혼과 함께 맞을 배우로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는 지난해 '태양의 후예'를 통해 3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하며 4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중국 한류에 정점을 찍은 주역이자 명실상부한 톱스타임을 증명했다. 향후 활약상에 대한 기대는 당연지사. 여러 작품의 쏟아지는



남성들의 모방으로 사랑받은 '연예계 3대 미녀' 김태희와 송혜교, 전지현(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출연 제의 속에 현재 위안부 소재의 영화 '환향' 시나리오를 받고 검토 중이다.

이들 외에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결혼으로 연예계 커플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장수' 커플인 윤계상·이하늬와 이기우·이정아는 2013년부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정경호·수영(소녀시대) 커플은 2014년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뒤 서로에 대한 애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정성·거미 커플도 2년 이상 연애전선 이상 무이다. 송승헌과 유여비, 주진모와 장리는 중국 국경을 오가는 국제커플이다.

백솔미 기자

서인국 병역면제 의혹

'골연골병변'으로 두차례 입대 연기 병기운 의혹...심하지 않았다면 4급 소속사측 "군면제 사유인지 몰랐다"



서인국

원발목 복사뼈의 연골이 분리되는 '박리성 골연골염'(골연골병변)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서인국(30)이 해당 질병을 사유로 두 차례 입대 연기 신청한 사실이 5일 알려져 의혹에 휩싸였다. 질병을 고의로 방치해 악화시킨 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인국은 2015년 3월과 2016년 10월 각각 '질병'(골연골병변)을 사유로 두 차례 입대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골이 얼마나 손상됐느냐에 따라 보통역(4급)과 면제(5급)로 나뉘게 되는데, 첫 연기 당시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회복무요원 판정(4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이 군 면제 사유인지 알지 못해 재검을 받지 않고 입대했다"면서 "일부러 방치했다거나 악화시켜 5급 판정을 받은 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 사실을 알고 있던 서인국이 현역 복무 의지가 강했다면 치료를 받고 입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 또 골연골병변 진단을 처음 받았을 당시 해당 질병이 징병검사의 신체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도 선택 남음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질병을 숨기고 입대할 만큼 현역복무 의지가 강했던 서인국이 신병훈련소에서 질병을 고백한 점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젤리피쉬 측은 해명자료 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서인국이 골연골병변으로 처음 입대를 연기한 당시는 KBS 2TV '왕의 얼굴'을 끝내고 KBS 2TV 월화극 '너를 기억해'를 준비할 때다. 두 번째 연기는 MBC 수목극 '쇼팽왕 루이' 촬영 시기다. 그 즈음 서인국은 JTBC '마리야나' OCN '38사기동대' 등 실세 없이 작품 활동을 했다. 수술을 받았다면 수개월 입원해야 해 작품 활동이 어려웠다. 연기 활동을 위해 입대를 연기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이 악화해 5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 서인국으로선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병역까지 면제 받은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서인국의 이 같은 의혹이 소속사 계약 만료가 임박하고 다른 기획사와 접촉설이 나온 시기라는 것이다.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조공이라고도 의혹이 있다면 원활한 연예활동이 어렵다. 서인국이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맨 배동성, 요리연구가 전진주와 결혼



배동성

개그맨 배동성(52)이 8월11일 오후 7시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요리연구가 전진주와 결혼한다.

배동성은 2013년 3월 이혼 후 홀로 지내왔다. 배동성은 최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을 알리고 있다. 배동성은 5월 '오빠계 솔개'라는 음반을 내기도 했다.

프로젝트그룹 '위너' 8월7일 미니앨범 발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그룹 위너원이 8월7일 첫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이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위너원 프리미어 쇼콘'을 통해 첫 무대도 선보인다. '쇼콘'(Show-Con)은 쇼케이스와 콘서트를 합친다는 특별한 퍼포먼스 무대를 의미한다. 위너원은 이날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신곡들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위너원은 현재 각종 광고 촬영과 데뷔앨범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